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대처, 유머감각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Correlation of Stress-coping, Humor Sense, and Adaptation to College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김건희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Kon Hee Kim(khkim@cup.ac.kr)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대처, 유머감각, 대학생활적응 정도와 변수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012년 6월 B시 일 대학교 간호학생 33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SPSS/WIN 21.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스트레스대처는 평균 43.33점, 유머감각 72.18점, 대학생활적응 68.02점으로 중간이상의 수준이었다. 대학생활적응 점수는 성별, 학년, 가족구성, 가정형편, 대학생활 만족도, 교수와의 관계, 대학성적, 이성친구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활적응은 스트레스대처, 유머감각과 유의하나 약한 상관관계에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대학생활적응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중심어 : | 대학생활적응 | 스트레스대처 | 유머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orrelation of stress-coping, humor sense, and adaptation to college of nursing students. Three hundred thirty eight subjects completed a structured questionnaire in June 2012.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21.0 program. The mean scores were as follows; stress-coping 43.33, humor sense 72.18, and adaptation to college 68.02. It meant beyond the intermediate level.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adaptation to college scores and general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cademic year, family type, economic status, campus life satisfaction, relation with faculties, grade,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opposite gender. There was significant but weak correlation of stress-coping, humor sense, and adaptation to college.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s considering students' characteristics. Additionally, university adjustment related factors should be studied.

■ keyword : | Adaptation to College | Stress-coping | Humor |

* 본 연구는 2012년도 부산가톨릭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4년 01월 17일
수정일자 : 2014년 03월 05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3월 18일
교신저자 : 김건희, e-mail : khkim@cup.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대학 입학과 함께 개인의 내적 적응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의 적응을 모두 포함하는 대학생활적응을 해야 한다[1]. 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게 되므로 대학생활적응 정도에 의해 향후 삶에서 형성되는 결과들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은 대학입시를 유일한 목표로 하고 있고, 이들의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한다[2].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아확립, 직업선택 등의 발달과업 성취는 등한시되고 있어 입학 후 대학생활의 적응과 발달과업의 달성 모두를 성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성공적인 대학생활은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의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생활은 고등학교 생활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적응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게 된다. 물론 적응이라는 문제는 인간의 모든 발달단계에서 중요하지만 대학생은 자아확립, 취업 등의 과업을 달성해야 하는 후기 청년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대학생이 대학생활에 얼마나 적응을 잘하느냐는 이후 직업 및 인생을 좌우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학생에게 학교 부적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은 매우 중요한 개인 차원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생의 60% 이상이 대학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직업 및 진로, 학점 등의 학업, 경제, 대인 및 이성관계 등의 문제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3].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 및 책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대학생은 사회적, 심리적 스트레스와 함께 자아확립을 위한 위기를 겪는 것이다[4]. 이에 더해 지나친 경쟁구도 속에서 높은 등록금과 청년 실업난으로 인한 진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자살을 생각하는 대학생 또한 증가하고 있다[5].

개인 차원의 스트레스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반응이며, 개인이 자신의 대처 능력을 초과한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는 개인이 노력을 통해 성장, 발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스트레스대처

의 궁극적 목표는 적응이다[6]. 즉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이란 개인의 성장이며 성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이들의 스트레스대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은 다수의 실습 교과목이 병원 등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해져 스트레스 관리 및 대학생활적응에 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7]. 하지만 최근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비교적 높은 취업률로 인해 다수의 고등학생이 전공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간호학과에 지원하고 있다. 그 때문에 간호대학생은 대학생활적응, 발달과업 달성뿐만 아니라 적성의 불일치로 인해 스트레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대학생활 중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일부 선행 연구결과는 대학생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대학에서의 활동에 재미를 느끼고 몰입함이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대학생이 낙관성을 가질수록 즉,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수록 위기 시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동기화되고, 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 때문이다[8]. 또한 대학생활 중 경험하게 되는 재미는 대학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에 있고 특히 친교생활이 보다 많은 재미를 느끼게 한다[9]. 더욱이 유머를 감지하고 즐기며 창조하는 능력인 유머 감각이 증대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져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0]. 또한 개인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유머를 사용하는 유머 대처 점수가 높은 대학생은 유머의 스트레스 완충작용으로 기분장애를 덜 경험하게 되고[11], 유머감각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할 경향이 높다[12].

그동안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은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다루어졌으며[1], 이후에도 인구사회학적 측면[13], 대인관계 측면[14] 및 발달적 측면[15]에서 접근이 이루어졌고 그 영향 정도가 확인되었다. 이제는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실제적인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중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더욱이 간호대학생은 이론과 실습의 병행이라는 학문적 특성으로 인해 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7] 이들을 위한 중재 마련

은 더욱 시급하다 하겠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대처, 유머감각, 대학생활적응 및 각 변수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이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대처, 유머감각,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대처, 유머감각,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확인한다.
-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대처, 유머감각,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확인한다.
- 셋째,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대처, 유머감각과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대처, 유머감각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B시 일개 4년제 간호대학생 338명이며, 자료수집은 2012년 6월 한 달 동안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대상자수는 둘 이상 집단의 차이 검증 시 유의수준 $\alpha=0.01$, 집단 수 4, 중간의 효과크기 $f=0.25$ 로 계산한 결과, 집단별로 필요한 표본의 수가 63으로(Cohen, 1988), 총 252명의 대상자가 필요하였으며, 응답률 80%를 고려하여 총 3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16].

사전에 연구목적, 절차, 연구대상자의 권리, 익명성, 비밀보장 및 연구 참여의 철회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만 사전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 응답 시간은 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배부된 350부 중 340

부를 회수하였고 이중 338부가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3. 연구도구

3.1 스트레스대처

스트레스대처는 스트레스대처 방식 척도(The Way of Stress Coping Checklist)[17]를 요인분석 후 선택, 개발한 도구[18]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한 결과 2개 요인이 도출되었고, 요인 설명력 25.6%, 모형의 적합도인 KMO 값 .788로 유의하게 나타나 적합도가 검증되었다. 24개 문항 중 요인적재량이 ± 0.40 미만으로 나타난 7개를 제외한 17개 문항을 이용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17문항은 적극적 대처 12문항, 소극적 대처 5문항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대처를 잘하는 것을 뜻한다. 적극적 대처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문제를 규명하고 대안적 해결책을 찾아가는 정도이고, 소극적 대처는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조절하는 정도를 뜻한다. 김정희와 이장호의 연구[18]에서 Cronbach's alpha는 .82에서 .9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7이었다.

3.2 유머감각

유머감각은 다면적 유머감각 척도(Multidimensional Sense of Humor Scale, MSHS)[19]를 수정, 번안한 도구[20]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한 결과 2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요인 설명력 48.2%, KMO 값 .926로 유의하게 나타나 적합도가 검증되었다. 본 도구는 유머생성 12문항, 유머에 대한 선호도 8문항, 총 20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머감이 뛰어남을 의미한다. 유머생성은 유머를 잘 사용하는 정도이며, 유머선호도는 유머러스한 상황이나 역할을 즐기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재선과 조아미의 연구[20]에서 Cronbach's alpha는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3.3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생 적응도 검사(Th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1]를 번안한 도구[21]를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5개 요인

이 도출되었고, 요인 설명력 40.5%, KMO값 .854로 유의하게 나타나 적합도가 검증되었다. 총 25문항 중 요인적재량이 ± 0.40 미만으로 나타난 3문항을 제외한 22개 문항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도구는 총 22문항으로, 학업적 적응 4문항, 사회적 적응 3문항, 정서적 적응 6문항, 신체적 적응 4문항, 대학에 대한 애착 5문항의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업적 적응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업 요구에 대한 적응이며, 사회적 적응은 대학이라는 사회적 구조에 학생 자신을 통합시키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서적, 신체적 적응은 대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스트레스, 불안, 신체적 반응을 경험하는 정도이고, 대학에 대한 애착은 학생이 정서적으로 대학이라는 사회에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음을 뜻한다. 이윤정의 연구[21]에서 Cronbach's alpha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및 스트레스대처, 유머감각,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대처, 유머감각, 대학생활적응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 Tukey post hoc test로 분석하였다. 또한 스트레스대처, 유머감각,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주축요인추출과 배리맥스 회전(Varimax rot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의 수용기준은 ± 0.40 이상, 고유치(eigen value)는 1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16].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를 분석하였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부 지역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전체 간호대학생으로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89.6%는 여학생이었다. 학년별로는 2학년 31.0%, 3학년 31.0%, 4학년 24.0%, 1학년 13.9% 순으로 나타났고 96.0%가 인문계열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였다. 약 90.0%가 부모님이 모두 계셨고, 가정형편을 보통 56.5%, 넉넉함 23.7%, 어려움 19.8%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상자의 40.0% 이상이 대학생 및 교수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었고 약 60.0%는 자신의 대학성적이 중 이상이라고 보고하였다. 대상자의 97.0%가 음주 경험이, 12.0%가 흡연 경험이 있었으며, 44.0%에게 이성친구가 있었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38)

특성	n	%	
성별	남	35	10.4
	여	303	89.6
학년	1	47	13.9
	2	104	30.7
	3	106	31.4
	4	81	24.0
고교계열	인문계	324	95.9
	전문계	14	4.1
가족구성	부모 모두 있음	303	89.6
	한부모	35	10.4
가정형편	넉넉함	80	23.7
	보통	191	56.5
	어려움	67	19.8
대학생활 만족도	만족	155	45.8
	보통	147	43.5
	불만	36	10.7
교수와의 관계	만족	143	42.3
	보통	181	53.6
	불만	14	4.1
대학성적	상	93	27.5
	중	110	32.5
	하	116	34.3
	결측치	19	5.6
흡연 경험	유	42	12.4
	무	296	87.6
음주 경험	유	331	97.9
	무	7	2.1
이성친구	유	149	44.1
	무	189	55.9
합계	338	100.0	

2. 대상자의 스트레스대처, 유머감각, 대학생활적응 정도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대처 점수는 43.33 ± 6.67 점으로 하위영역별로는 적극적 대처 31.36 ± 5.86 점, 소극적

대처 11.97±2.84점이었다. 유머감각은 72.18±10.40점, 하위영역 중 유머생성은 38.11±8.19점, 유머에 대한 선호도는 34.07±4.27점이었다. 대학생활적응은 총점 68.02±12.12점, 하위영역별로는 학업적 적응 10.67±3.27점, 사회적 적응 10.08±3.27점, 정서적 적응 16.09±5.00점, 신체적 적응 14.35±2.84점, 대학에 대한 애착 16.81±3.63점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대상자의 스트레스대처, 유머감각, 대학생활적응 정도 (N=338)

변수		Mean	SD
스트레스 대처	총점	43.33	6.67
	적극적 대처	31.36	5.86
	소극적 대처	11.97	2.84
유머감각	총점	72.18	10.40
	유머생성	38.11	8.19
	유머에 대한 선호도	34.07	4.27
대학생활 적응	총점	68.02	12.12
	학업적 적응	10.67	3.27
	사회적 적응	10.08	2.26
	정서적 적응	16.09	5.00
	신체적 적응	14.35	2.84
	대학에 대한 애착	16.81	3.63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대처, 유머감각, 대학생활적응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대처는 학년(p=.002), 이성친구 유무(p=.02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 4학년이 1학년과 3학년보다 점수가 높았고,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 높은 점수를 보였다. 적극적 대처는 학년(p<.001), 대학성적(p=.008), 이성친구 유무(p=.003)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 4학년이 1, 2, 3학년보다, 대학성적이 상인 경우가 하인 경우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 점수가 높았다. 수동적 대처는 대학생활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13), 사후검정 결과 대학생활 만족도가 보통인 경우가 만족하는 경우보다 점수가 높았다[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머감각 점수는 총점의 경우 교수와의 관계 만족도(p=.016), 흡연 여부(p=.001), 이성친구 유무(p=.002)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 교수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경우가 불만을 가진

경우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고,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와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 하위영역별로 유머생성 점수는 흡연 여부(p=.004)와 이성친구 유무(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 점수가 높았다. 유머에 대한 선호도 점수는 성별(p=.006), 학년(p=.004), 교수와의 관계(p=.004), 흡연 여부(p=.007)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인 경우와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 점수가 높았다. 사후검정 결과, 1학년이 3, 4학년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고, 교수와의 관계가 만족스럽거나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불만족하는 경우보다 점수가 높았다[표 4].

일반적 특성별 대학생활적응 점수의 차이는 [표 5]과 같다. 총점은 성별(p<.001), 학년(p=.023), 가정형편(p<.001), 대학생활 및 교수와의 관계 만족도(p<.001), 대학성적(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의 점수가 높았고, 사후검정 결과 1학년이 3, 4학년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가정형편이 넉넉하다고 인식한 경우가 어렵다고 인식한 경우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대학생활 및 교수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대학성적이 상이나 중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하라고 인식한 경우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하위영역별로 학업적 적응은 성별(p=.001), 학년(p=.001), 대학생활 및 교수와의 관계 만족도(p<.001), 대학성적(p<.001), 이성친구 유무(p=.043)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인 경우와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 사후검정 결과 학년별로는 3학년보다 4학년이, 대학생활과 교수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경우가 보통이나 불만족하는 경우보다, 대학성적이 하, 중, 상으로 올라갈수록 높은 점수를 보였다. 사회적 적응은 성별(p=.039), 학년(p=.030), 대학생활 및 교수와의 관계 만족도(p<.001), 대학성적(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사후검정 결과 2학년이 3학년보다, 대학생활과 교수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경우가 보통이나 불만족하는 경우보다, 대학성적이 상, 중인 경우가 하라고 인식하는 경우보다 점수가 높았다. 정서적 적응은 성별(p=.007), 학년(p<.001), 가정형편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대처의 차이

(N=338)

일반적 특성		스트레스대처					
		총점		적극적 대처		수동적 대처	
		M±SD	t/F(p)	M±SD	t/F(p)	M±SD	t/F(p)
성별	남	44.34±6.76	0.948 (.344)	32.63±6.00	1.353 (.177)	11.71±3.20	0.563 (.574)
	여	43.21±6.63		31.21±5.84		12.00±2.80	
학년	1 ^a	41.38±6.50	5.188 (.002) d>a,c	29.89±5.88	7.163 (<.001) d>a,b,c	11.48±2.45	1.503 (.213)
	2 ^b	43.43±6.50		31.03±5.63		12.40±2.86	
	3 ^c	42.41±6.72		30.44±5.90		11.96±2.87	
	4 ^d	45.54±6.39		33.84±5.44		11.70±2.94	
고교계열	인문계	43.24±6.68	1.203 (.230)	31.28±5.86	1.163 (.246)	11.96±2.82	0.424 (.642)
	전문계	45.43±6.19		33.14±5.71		12.29±3.27	
가족구성	부모 모두 있음	43.39±6.76	0.471 (.638)	31.40±5.84	0.384 (.701)	11.99±2.87	0.312 (.755)
	한부모	42.83±5.86		31.00±6.09		11.83±2.60	
가정형편	넉넉함	44.15±6.38	1.436 (.239)	31.94±5.46	1.373 (.255)	12.21±3.32	0.381 (.683)
	보통	43.36±6.58		31.47±5.97		11.89±2.52	
	어려움	42.28±7.17		30.37±5.98		11.91±3.10	
대학생활 만족도	만족 ^a	43.46±6.63	0.052 (.949)	31.98±5.91	1.607 (.202)	11.48±2.68	4.404 (.013) a<b
	보통 ^b	43.23±6.75		30.84±5.69		12.39±2.91	
	불만 ^c	43.19±6.67		30.81±6.25		12.39±2.93	
교수와의 관계	만족	43.45±6.74	0.246 (.782)	31.87±5.96	1.028 (.359)	11.58±2.92	2.717 (.068)
	보통	43.31±6.66		31.01±5.81		12.31±2.77	
	불만	42.14±6.43		30.50±5.63		11.64±2.56	
대학성적	상 ^a	44.18±6.26	1.796 (.168)	32.69±6.06	4.896 (.008) a>c	11.49±2.72	2.054 (.130)
	중 ^b	43.45±6.45		31.40±5.55		12.05±3.00	
	하 ^c	42.45±7.13		30.16±5.88		12.29±2.85	
흡연경험	유	44.21±7.45	0.917 (.360)	31.90±6.89	0.642 (.521)	12.31±3.06	0.827 (.409)
	무	43.21±6.55		31.28±5.71		11.92±2.81	
음주경험	유	43.33±6.70	0.489 (.625)	31.35±5.89	0.866 (.387)	11.98±2.84	0.644 (.520)
	무	44.57±3.74		33.29±3.99		11.29±1.70	
이성친구	유	44.30±6.68	2.319 (.021)	32.42±6.00	2.946 (.003)	11.88±2.77	0.610 (.542)
	무	42.62±6.54		30.55±5.61		12.07±2.90	

(p=.019), 대학생활 및 교수와의 관계 만족도(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사후검정 결과 1학년이 나머지 학년보다, 가정형편이 넉넉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어렵다고 인식하는 경우보다, 대학생활 및 교수와의 관계 만족도가 불만, 보통, 만족으로 올라갈수록 유의하게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신체적 적응은 가족구성(p=.005), 가정형편(p=.001), 대학생활 및 교수와의 관계 만족도(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 점수가 높았고, 사후검정 결과 가정형편이 넉넉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보통이나 어렵다고 여기는 경우보다, 대학생활 및 교수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경우가 보통이나 불만족하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 대학에 대한 애착 점수는 성별(p<.001), 학년(p=.001), 대학생활 및 교수와의 관계 만족도(p<.001), 대학성적(p=.00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가 점수가 높았고, 사후검정 결과 1학년이 3, 4학년보다,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수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경우가 보통이나 불만족하는 경우보다, 성적이 상이나 중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하라고 여기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4. 스트레스대처, 유머감각,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대처, 유머감각, 대학생활적응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활적응은 스트레스대처(r=.131, p=.016), 유머감각(r=.235, p<.001)과 유의하나 약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표 6].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머감각의 차이

(N=338)

일반적 특성		유머감각					
		총점		유머생성		유머에 대한 선호도	
		M±SD	t/F(p)	M±SD	t/F(p)	M±SD	t/F(p)
성별	남	74.83±11.29	1.597	38.89±9.24	0.592	35.94±3.97	2.774
	여	71.87±10.27	(.111)	38.02±8.07	(.554)	33.85±4.25	(.006)
학년	1 ^a	71.04±8.90	1.387 (.247)	38.13±6.97	0.841 (.472)	32.91±4.03	2.721 (.044) a<c,d
	2 ^b	71.28±11.35		37.68±8.73		33.60±4.41	
	3 ^c	72.08±10.51		37.58±8.86		34.50±3.74	
	4 ^d	74.11±9.66		39.33±7.17		34.78±4.71	
고교계열	인문계	72.12±10.24	0.365	38.02±8.16	0.982	34.10±4.19	0.512
	전문계	73.50±13.98	(.721)	40.21±8.82	(.327)	33.29±5.90	(.617)
가족구성	부모 모두 있음	72.10±10.44	0.391	37.93±8.14	1.160	34.17±4.29	1.273
	한부모	72.83±10.18	(.696)	39.63±8.62	(.247)	33.20±4.03	(.204)
가정형편	넉넉함	73.86±11.92	1.380 (.253)	39.48±9.26	1.515 (.221)	34.39±4.56	.539 (.584)
	보통	71.64±9.15		37.79±7.13		33.86±4.24	
	어려움	71.69±11.68		37.40±9.52		34.28±4.01	
대학생활 만족도	만족	73.22±10.27	1.921 (.148)	38.68±8.34	1.505 (.224)	34.54±3.96	1.728 (.179)
	보통	70.93±10.61		37.24±8.22		33.68±4.33	
	불만	72.81±9.76		39.17±7.23		33.64±5.12	
교수와의 관계	만족 ^a	73.70±10.14	4.207	39.17±8.19	2.379 (.094)	34.52±4.03	5.501
	보통 ^b	71.43±10.15	(.016)	37.44±8.12		33.98±4.09	(.004)
	불만 ^c	66.43±13.84	a>c	35.79±8.59		30.64±6.96	a,b>c
대학성적	상	72.43±9.37	0.197 (.821)	38.57±7.89	0.961 (.383)	33.86±3.86	0.649 (.524)
	중	72.45±9.95		38.72±7.02		33.74±4.59	
	하	71.67±11.92		37.32±9.60		34.35±4.34	
흡연경험	유	77.21±11.92	3.407	41.48±8.69	2.877	35.74±5.01	2.738
	무	71.46±9.98	(.001)	37.63±8.02	(.004)	33.83±4.10	(.007)
음주경험	유	72.17±10.44	0.461	38.13±8.25	0.226	34.04±4.25	1.564
	무	74.00±5.16	(.645)	37.43±4.08	(.822)	36.57±3.41	(.119)
이성친구	유	74.09±9.65	3.102	39.77±7.17	3.436	34.32±4.24	0.964
	무	70.59±10.74	(.002)	36.72±8.73	(.001)	33.87±4.28	(.336)

IV. 논 의

대상자의 스트레스대처 점수는 4점 만점으로 환산 시 2.55점으로 중간 이상이었으며, 적극적 대처 2.61점, 소극적 대처 2.39점의 순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22]와 일치하였다. 적극적 스트레스대처는 개인이 통제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그 과정은 문제를 규명하고 대안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23]. 즉 간호대학생이 스트레스에 처했을 때 피하지 않고 문제를 확인,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거나 사회적 지지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유머감각은 4점 만점으로 환산 시 2.89점, 하위영역별로 유머생성 2.54점, 유머에 대한 선호도 3.41점이었다. 이는 일반 대학생의 유머감각 2.59

점, 유머생성 2.44점, 유머에 대한 선호도 2.91점이라는 선행 연구[12]를 상회하는 결과이다. 유머감각은 유머를 어느 정도 사용하여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제에 대처하는 것으로[19],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유머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함을 뜻한다. 이는 간호대학생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간호학의 전공 특성상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고, 그에 따라 여러 문제를 경험하게 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갖추게 되었으며, 더불어 유머를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점수는 4점 만점으로 환산 시 2.47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23]의 2.36점과 유사하였으나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의 2.74점[15]보다는 다소 낮았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계속)

(N=338)

일반적 특성		대학생활적응					
		총점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M±SD	t/F(p)	M±SD	t/F(p)	M±SD	t/F(p)
성별	남	75.89±11.57	4.151	12.34±3.10	3.228	10.83±2.22	2.073
	여	67.11±11.87	(<.001)	10.48±3.24	(.001)	10.00±2.25	(.039)
학년	1 ^a	78.38±10.38	5.652 (.001) a>c,d	10.96±2.83	5.470 (.001) c<d	10.34±2.08	3.023 (.030) b>c
	2 ^b	69.06±12.33		10.53±3.44		10.55±2.49	
	3 ^c	65.11±11.86		9.87±3.27		9.73±2.04	
	4 ^d	67.38±12.12		11.75±3.02		9.80±2.23	
고교계열	인문계	67.95±12.07	0.488	10.71±3.25	0.870	10.08±2.26	0.019
	전문계	69.57±13.67	(.626)	9.93±3.85	(.385)	10.07±2.43	(.985)
가족구성	부모 모두 있음	68.17±12.07	0.658	10.62±3.27	0.839	10.08±2.28	0.166
	한부모	66.74±12.64	(.511)	11.11±3.31	(.402)	10.14±2.07	(.868)
가정형편	넉넉함 ^a	70.91±12.66	3.821	11.05±3.40	0.715 (.490)	10.48±2.37	2.438 (.089)
	보통 ^b	67.68±11.93	(.023)	10.59±3.12		9.85±2.15	
	어려움 ^c	65.54±11.49	a>c	10.48±3.54		10.27±2.37	
대학생활 만족도	만족 ^a	74.93±10.74	80.105	11.72±3.30	18.133	10.94±1.99	23.692
	보통 ^b	63.95±9.26	(<.001)	10.01±2.83	(<.001)	9.44±2.13	(<.001)
	불만 ^c	54.92±9.62	a>b>c	8.86±3.43	a>b,c	9.03±2.58	a>b,c
교수와의 관계	만족 ^a	72.83±11.88	27.306	11.46±3.34	9.755	10.90±2.10	19.075
	보통 ^b	65.13±10.83	(<.001)	10.21±3.06	(<.001)	9.58±2.20	(<.001)
	불만 ^c	55.64±10.62	a>b>c	8.43±3.27	a>b,c	8.50±1.79	a>b,c
대학성적	상 ^a	70.42±12.70	11.042	12.41±3.00	43.335	10.43±2.20	8.473
	중 ^b	70.38±11.57	(<.001)	11.16±2.72	(<.001)	10.53±2.02	(<.001)
	하 ^c	63.89±11.56	a,b>c	8.75±3.02	a>b>c	9.42±2.41	a,b>c
흡연경험	유	68.12±14.65	0.056	11.26±4.03	1.243	9.76±2.48	0.984
	무	68.00±11.75	(.955)	10.59±3.15	(.215)	10.13±2.23	(.326)
음주경험	유	68.01±12.19	1.047	10.68±3.29	0.710	10.10±2.27	2.006
	무	72.86±8.69	(.296)	11.57±2.37	(.478)	9.14±1.21	(.085)
이성친구	유	68.58±11.82	0.686	11.09±3.32	2.030	10.13±2.33	0.411
	무	67.66±12.40	(.493)	10.37±3.22	(.043)	10.03±2.20	(.681)

활적응 정도가 타 전공 대학생에 비해 낮으므로 이를 위한 중재가 요구되는 결과이다. 하위영역별로는 신체적 적응 2.87점, 사회적 적응 2.69점, 대학에 대한 애착 2.69점, 정서적 적응 2.15점, 학업적 적응 2.13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학업활동 적응도가 가장 높고 사회체험 적응도가 가장 낮았다는 선행 연구결과 [23]와 상반된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선행 연구와 달리 2학년과 3학년의 비율이 높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간호학과의 교육과정 상 3학년은 병원 등 임상현장 실습이 시작되는 학년이다. 그러므로 생소한 환경에 놓이게 되고, 학내에서와는 다른 문제들에 봉착하며, 이를 해결하고 적응해야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정서적 적응 및 학업적 적응이 어려울 수 있다. 선행 연구[23]에서도 성적이 대학적응에 차이를 주는 주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대상자 중 4학년

의 학업적 적응 점수가 3학년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 같이 간호대학생, 특히 3학년의 학문적 적응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중재가 요구된다.

스트레스대처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학년, 대학생활 만족도, 대학성적, 이성친구 유무로, 성별, 경제상태,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선행 연구결과[4][22]와 상이하였다. 특히 학년이 높고, 성적이 상위권이라고 인식하며,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 스트레스에 보다 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학업적 성취를 보이는 대학생이 문제해결 능력이 보다 높다는 선행 연구[24]와 일치한다. 또한 적극적 스트레스대처가 문제를 규명,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사회적 지지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고[19], 대학생의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갈등 해결 전략을 사용하며[25], 문제 상황에서 이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계속)

(N=338)

일반적 특성		대학생활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	
		M±SD	t/F(p)	M±SD	t/F(p)	M±SD	t/F(p)
성별	남	18.23±4.86	2.696	15.23±3.07	1.926	19.26±2.36	6.059
	여	15.84±4.96	(.007)	14.26±2.80	(.055)	16.53±3.65	(<.001)
학년	1 ^a	18.85±4.70	7.089 (<.001) a>b,c,d	15.04±2.70	1.148 (.330)	18.19±2.82	5.514 (.001) a>c,d
	2 ^b	16.38±4.89		14.20±2.84		17.39±3.79	
	3 ^c	15.25±4.50		14.19±2.96		16.08±3.77	
	4 ^d	15.21±5.38		14.38±2.72		16.23±3.33	
고교계열	인문계	16.02±4.95	1.187	14.32±2.83	1.058	16.81±3.61	0.029
	전문계	17.64±6.01	(.236)	15.14±2.93	(.291)	16.79±4.10	(.977)
가족구성	부모 모두 있음	16.13±4.98	0.400	14.51±2.80	2.833	16.84±3.57	0.318
	한부모	15.77±5.24	(.690)	13.09±2.83	(.005)	16.63±4.13	(.750)
가정형편	넉넉함 ^a	17.11±5.69	4.010	14.88±2.53	6.828	17.40±3.69	1.407 (.246)
	보통 ^b	16.12±4.75	(.019)	14.52±2.87	(.001)	16.60±3.48	
	어려움 ^c	14.79±4.57	a>c	13.27±2.85	a,b>c	16.73±3.92	
대학생활 만족도	만족 ^a	18.30±4.92	45.624	15.03±2.81	9.248	18.94±2.82	91.529
	보통 ^b	14.95±4.13	(<.001)	13.91±2.69	(<.001)	15.63±3.01	(<.001)
	불만 ^c	11.22±3.34	a>b>c	13.28±2.87	a>b,c	12.53±3.01	a>b>c
교수와의 관계	만족 ^a	17.25±5.26	10.580	15.02±2.82	8.137	18.20±3.34	22.750
	보통 ^b	15.46±4.55	(<.001)	13.96±2.73	(<.001)	15.93±3.49	(<.001)
	불만 ^c	12.00±4.33	a>b>c	12.79±2.91	a>b,c	13.93±3.22	a>b,c
대학성적	상 ^a	15.90±5.22	1.533 (.218)	14.09±3.15	1.492 (.226)	17.59±3.45	6.308 (.002) a,b>c
	중 ^b	16.75±4.96		14.71±2.65		17.24±3.49	
	하 ^c	15.60±4.98		14.17±2.78		15.94±3.82	
흡연경험	유	16.26±5.35	0.235	13.83±2.88	1.283	17.00±4.33	0.355
	무	16.07±4.96	(.814)	14.43±2.83	(.201)	16.79±3.52	(.722)
음주경험	유	16.06±4.99	1.136	14.34±2.86	0.845	16.83±3.65	1.803
	무	18.57±5.16	(.257)	15.57±2.23	(.399)	18.00±1.63	(.112)
이성친구	유	15.99±5.04	0.346	14.32±2.83	0.259	17.04±3.55	0.896
	무	16.18±5.00	(.729)	14.40±2.86	(.796)	16.68±3.69	(.371)

표 6. 대상자의 스트레스대처, 유머감각,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 (N=338)

변수	스트레스대처	유머감각	대학생활적응
	r(p)		
스트레스대처	1.000	.290 (<.001)	.131 (.016)
유머감각		1.000	.235 (<.001)
대학생활적응			1.000

성친구 등 사회적 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적지지 체계에의 접근성이 용이한 대학 환경의 조성 및 학업성취도 향상, 문제해결 능력 배양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대상자는 교수와의 관계에 만족할수록 유머감각과 유머에 대한 선호도 점수가 높았다. 이는 교수

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유머를 더 잘 사용하여 원만한 관계를 지속함을 뜻한다. 대학생은 대학이라는 조직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스트레스, 특히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고, 그 가운데 부각되는 것이 교수와의 관계이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이론 및 실습 교과목을 통해 학교와 임상현장에서 교수와 만나게 되고 타 전공생보다 오랜 시간을 함께 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교수와의 관계가 대학생의 학업적 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26]를 고려할 때 긍정적인 측면이며, 간호대학생의 원만한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교육 중재 개발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측면이다. 본 연구결과 흡연을 하는 간호대학생의 유머감각, 유머생성, 유머에 대한 선호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대학생의 첫 흡연 시작 동기가 스트레스이고[27], 유머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정서 중심의 대처 전략으로 고려되며[10], 높은 유머 선호도 점수는 유머가 개인 또는 조직의 관계 속에서 윤희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12]는 선행 연구를 반영하는 결과이다. 즉, 현재 대학생들이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유머감각과 흡연이라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남학생의 48.6%, 여학생의 8.3%가 흡연을 한다는 본 연구결과와 감소 추세이긴 하나 남학생의 58.2%, 여학생의 15.3%가 흡연하고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28]가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흡연은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대학생활적응 등 스트레스대처를 위한 중재 개발 시 유머감각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연을 위한 중재가 병행되어야 하겠다. 간호대학생은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 유머감각과 유머생성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후기 청소년기인 대학생의 경우 이성교제를 통하여 친밀감 형성 및 향후 원만한 인간관계를 통해 성숙한 인격을 형성하게 되는데[15],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 교제를 통해 형성된 친밀감을 바탕으로 어떠한 일에 즐거운 면을 보고, 유머러스한 상황이나 역할을 즐기는 능력, 즉 유머감각이 향상됨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대상은 남학생인 경우 유머에 대한 선호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성별에 따라 유머로부터 받는 영향에 차이가 나고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에 비해 유머감각 및 유머선호도 점수가 높았다는 결과[29]와 유사하다. 반면, 성별에 따른 유머생성과 유머선호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결과[12]와는 상이하였다. 고학년의 유머에 대한 선호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본 연구결과는 고학년이 저학년에 비해 높은 유머감각 점수를 보인 결과[12]와 유사하였다. 간호교육에서 유머를 사용하면 어려운 상황을 용이하게 해주고, 학생간의 응집력을 강화하며, 효과적인 치료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다[30]. 본 연구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이 성별, 학년, 교수와의 관계 만족도, 흡연 여부 및 이성친구 유무 등 개별 특성에 따라 유머감각의 차이가 있으므로 유머를 적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시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겠다.

대학생활적응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가정형편, 대학생활 만족도, 교수와의

관계 만족도, 대학성적, 이성친구 유무였다. 대학생 및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결과[15][23]와 같이 본 연구결과 또한 남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점수가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특성상 진로 및 취업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남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이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선행 연구결과[31]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 저학년의 대학생활적응 점수가 고학년보다 높아 학년별 대학생활 적응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선행 연구[15]와 상이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에 대한 애착이 대학생활 자체에 대해 만족감과 자부심을 나타내는 것[32]으로 신입생의 경우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에 입학한 경우 그에 따른 만족감과 자부심이 높아 대학생활 적응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간호학과와 의 경우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부분의 고등학생이 진학을 희망하는 학과로 그 정도가 더욱 크겠다. 본 연구결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에 비해 넉넉한 경우에서 높은 대학생활적응 점수가 나타나 대학생이 경제수준별 대학생활적응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결과[15] 및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32]와 상이하였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은 대학생활에의 적응과 함께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대학생활적응에 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학생활 및 교수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점수가 높아 학교생활에 매우 만족한 간호대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대학생활적응도가 높았다는 연구결과[4]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은 대학 내에서 경험하는 교수의 태도, 교수와의 관계, 상호작용 등이 학업중단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34]와 맥을 같이한다. 나아가 사회적 유대감이 높은 대학생들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으므로 [35]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해 교수 및 교수와의 대인관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을 뜻한다. 본 연구결과 대학성적이 상위권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대학생활적응 총점 및 학업적, 사회적 적응, 대

학에 대한 애착 점수가 높아 학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23][32]와 일치하였다. 여기에서 대학의 학업적 요구를 성공적으로 성취한 상위권의 학생이 대학생활에 보다 잘 적응함을 알 수 있다. 학업적 성취를 하지 못한 대학생은 심리적 스트레스나 다양한 문제행동 등의 부적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36], 학업적 적응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할 특성이라 하겠다.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 학업적 적응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새로운 학업 환경으로의 이동에 완충 기전과 자원이 된다는 결과[37]와 일치하였다. 이성친구라는 사회적 지지로 인해 대학생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학업 환경에의 적응이 용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로움이 학업적 과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료로부터 대학생을 고립시킬 수 있음을 뜻하므로[38],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중재 개발 시 이성친구뿐만 아니라 동료와의 인간관계 형성, 협업을 이룰 수 있는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스트레스 대처, 유머감각과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었으나 그 정도가 매우 미약하였다. 성격의 강점 중 유머는 대학생의 긍정 심리자본의 형성 및 계발을 돕는다[29]. 유머감각의 증대는 자부심을 높이고 역기능적인 자기평가 기준을 감소시키며, 인지되는 스트레스 및 의기소침의 수준을 낮춘다. 따라서 대학생이 보다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갖게 하여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0]. 또한 유머감각은 대학 만족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대인 관계를 맺도록 하여 대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12]. 그러므로 간호대학생, 나아가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스트레스대처 및 유머감각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 세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미약하므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전공 특성상 대학생활 중 다양한 위기를 겪게 되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있어 성별, 학년, 대학생활 및 교수와의 관계 만족도 등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미약하나 스트레스대처와 유머감각이 대학생활적응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있었다. 따라서 대학생활 중에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면서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되 유머감각을 고려해야 하겠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대처, 유머감각과 대학생활적응은 중간 이상의 수준이었다.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 남학생인 경우, 저학년인 경우, 가정형편이 넉넉한 경우, 대학생활 및 교수와의 관계에 만족한 경우, 자신의 성적이 상위권이라 인식한 경우,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 대학생활적응 점수가 높았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스트레스대처 및 유머감각과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어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유머를 즐기고 잘 활용할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초기 성인기 발달과업, 대학생으로써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 및 간호학의 학문적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과정에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을 위해 개별 특성 및 스트레스대처, 유머감각을 고려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 스트레스대처, 유머감각과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는 유의하나 그 정도가 매우 약했다. 따라서 대학생활적응과 관련이 있는 다른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추후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더불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개별적 특성이 확인된 바 이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나아가 간호교육기관은 타 전공과는 다른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기관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1] R. W. Baker and B. Siryk,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 of Consulting Psychology, Vol.31, pp.179-189, 1984.
- [2] <http://www.moe.go.kr/web/45859/ko/board/view.do?bbsId=294&boardSeq=50261>
- [3] 김민철, 김두화, "2008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제30권, 제1호, pp.89-168, 2009.
- [4] 이영란, 김선희, 주민선,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 스트레스 대처 방식 및 학교적응",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9권, 제2호, pp.172-182, 2013.
- [5] 심용출, 나동석,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귀인성향의 매개효과와 대학생활적응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6호, pp.203-226, 2012.
- [6] 권윤희, 김정남, "MBTI를 활용한 성장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및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13권, 제2호, pp.216-229, 2002.
- [7] N. Seyedfatemi, M. Tafreshi, and H. Hagani, "Experienced Stressors and Coping Strategies among Iranian Nursing Students," BioMed Central Nursing, Vol.6, No.11, pp.1-10, 2007.
- [8] 조은아, 이희경, "낙관성/비관성이 대학생 생활 적응 및 긍정/부정 정서에 미치는 영향: 성취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12호, pp.351-374, 2011.
- [9] 정은이, "재미와 몰입 경험이 대학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제연구, 제44권, pp.71-99, 2012.
- [10] M. H. Abel, "Humor,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Humor: International J. of Humor Research, Vol.15, No.4, pp.365-381, 2002.
- [11] R. A. Martin and H. M. Lefcourt, "Sense of Humor as a Moderator of Relation between Stressors and Mood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45, pp.1313-1324, 1983.
- [12] 백정선, *대학생의 유머감각 및 유머스타일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13] 이지혜, *대학교 신입생을 위한 인지행동 진로집단상담의 효과: 사회적지지, 진로자기효능감, 진로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14] 송정애, 장정순, "전문대학생의 대학생생활적응과 가족기능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5권, 제1호, pp.119-144, 2010.
- [15] 김혜래, "청소년 후기 발달적 특성이 대학생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자율성, 사회적 유대감, 진로 효능감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제24권, pp.85-105, 2013.
- [16] 이은옥, 임난영, 박현애, 이인숙, 김종임, 배정미, 이선미, *간호연구와 통계분석*, 파주: 수문사, 2009.
- [17] S. Folkman and R. S. Lazarus,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48, No.1, pp.150-170, 1985.
- [18] 김정희, 이장호,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대학 신입생의 스트레스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권, 제1호, pp.25-45, 1988.
- [19] J. A. Thorson and F. C. Powell, "Sense of Humor and Dimensions of Personality," J. of Clinical Psychology, Vol.49, No.6, pp.799-809, 1993.
- [20] 이재선, 조아미, "청소년의 유머감각과 유머스타일이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3권, 제6호, pp.79-100, 2005.
- [21] 이운정, *지방출신 서울유학생의 대학생 생활 적응과 진로계획*,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22] 박진아, 이은경,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대학생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 간호행정학회지, 제17권, 제3호, pp.267-276, 2011.
- [23] 양남영, 문선영,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증진행위 및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이 대학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9권, 제1호, pp.33-42, 2013.
- [24] P. Adachi and T. Willoughby, “More Than Just Fun and Games: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s between Strategic Video Games, Self-reported Problem Solving Skills, and Academic Grades,” *J. of Youth & Adolescence*, Vol.42, No.7, pp.1041-1052, 2013.
- [25] 박지선, 김남희, 천성문, “대학생의 동료에 대한 애착정도 와 자아분화 및 인간관계 성숙도와 의 관계”, 상담학 연구, 제3권, 제2호, pp.323-336, 2002.
- [26] 배상훈, 장환영, “대학생의 학습투자시간 및 교수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개인 변인 및 대학 변인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제13권, 제4호, pp.163-187, 2012.
- [27] 김한수, 이옥자, 양남영, “흡연 대학생의 금연의 도 영향요인”,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7권, 제6호, pp.1251-1259, 2006.
- [28] 이민영, 유자혜, “일부지역 대학생들의 흡연 실태조사”, 한국치위생학회지, 제10권, 제5호, pp.917-924, 2010.
- [29] 박일, 고영진, “대학생의 유머감각과 유머스타일이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011권, p.308, 2011.
- [30] L. M. Englert, “Learning with Laughter: Using Humor in the Nursing Classroom,”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 Vol.31, No.1, pp.48-49, 2010.
- [31] 박정희, 김홍석,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11호, pp.125-1144, 2009.
- [32] 이영민, 임정연, “대학생의 개인특성 및 학교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결정요인 분석”, 평생교육·HRD 연구, 제7권, 제4호, pp.91-120, 2011.
- [33] 김근면, 차선경, “간호대학신입생의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표현양면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호, pp.322-332, 2013.
- [34] E. T. Pascarella and P. T. Terenzini, *How college affects students*. San Francisco: Jossey-Bass, 1991.
- [35] 이수진, “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유대감과 자율성이 학교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 문제를 매개로”, 한국가족복지학, 제15권, 제1호, pp.119-144, 2009.
- [36] 이수진, “지각된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과 대학생활에서의 학업성취, 정서적 적응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제25권, 제4호, pp.903-926, 2011.
- [37] M. E. Schneider and D. J. Ward, “The Role of Ethnic Identification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in Latinos’ Adjustment to College,” *Hispanic J. of Behavioral Sciences*, Vol.25, pp.539-554, 2003.
- [38] M. Crede and S. Niehorster, “Adjustment to College as Measured by th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A Quantitative Review of Its Structure and Relationships with Correlates and Consequence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Vol.24, pp.133-165, 2012.

저자 소개

김 건 희(Kon Hee Kim)

정회원



- 199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2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간호교육, 교육측정 및 평가